



## 대단원 종합 문제

학년 반 번 이름

### 3. 즐거운 언어생활

점수

확인

담화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

#### 01 <보기>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?

[보기]

- Ⓐ 말하는 이와 듣는 이
- Ⓑ 전달하려는 내용
- Ⓒ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
- Ⓓ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·문화적 맥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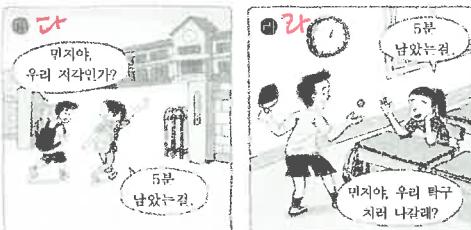
- ① Ⓐ, Ⓑ  
② Ⓑ, Ⓒ  
③ Ⓑ, Ⓓ, Ⓔ  
④ Ⓑ, Ⓒ, Ⓓ, Ⓔ

#### 02~05] 다음 담화를 보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

#### 02 (가)의 손님과 (나)의 환자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 -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오래 기다렸어요.  
 ② (가) - 네, 음식이 맛있고 푸짐해서 잘 먹었습니다.  
 Ⓢ (가) - 목이 부었는지 음식을 삼키기가 힘이 드네요 (이비인후과)  
 ④ (나) - 이가 혼들려서 음식을 꾹꾹 씹기가 어려워요.  
 ⑤ (나) - 식사는 데 불편함은 없는데 양치할 때 괴가 나오요.



#### 03 (다)와 (나)에 나타난 민지의 대답을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?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(다)            | (나)           |
| ① 응, 우리 지각이야.  | 그래, 탁구 치러 가자. |
| ② 응, 시간이 축박해.  | 그냥 교실에서 치자.   |
| ③ 아니, 지각 아니야.  | 아니, 시간이 부족해.  |
| ④ 아직 시간 여유 있어. | 그래, 시간 충분하니까. |
| ⑤ 응, 우리 지각일걸.  | 쉬는 시간 끝나.     |



담화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

#### 04 (가)~(사)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와 (나)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.  
 ② (다)와 (라)에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.  
 ③ (마)의 아주머니는 세대나 문화 차이 때문에 담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**사회·문화적 맥락**  
 Ⓢ (바)는 말하는 이의 말이 ~~장~~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는 이가 혼란이 느끼는 상황이다. **문화 차이**  
 ⑤ (사)의 성현이와 유미는 주제가 한 가지로 모아지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. **사회 맥락**



담화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

#### 05 ⑥에 담긴 의미를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조건

-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밝힐 것
- 성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

방과 후 교실에서 시험 공부할 장소는 제안하고 있다.

#### 06~09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고모: 주연이, 고모 집에 오랜만이지? 너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.

주연: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. 저 아무거나 잘 먹어야요.

고모: 그게 아니고,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.

주연: 아하, 이제 이해했어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!

#### (나) 205호에 사시는 분께

안녕하세요? 저는 아래층인 205호에 사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편지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해요. 그동안 몇 번 직접 텔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. 혹시나 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.

최근에 부쩍 저희 집 작은방 침장 쪽에서 밤늦게까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작은방이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.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도 소리가 들려요.

(다) 안녕하세요? 저는 대전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. 얼마 전 아빠가 설렁탕을 드시면서 '국물이 ~~사~~원하다!'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국물이 진짜 뜨거워서 아빠는 땀까지 펄펄 흘리고 계셨거든요. 아빠는 왜 거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?

아버지께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셨던 의아하셨군요.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 차고 신뜻할 때뿐만 아니라,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에도 시원하다는 말을 써요.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니다.

(라) 안녕하세요? 저는 한국에 온 지 네 달째인 다니엘입니다. 오늘 친구인 민석이, 재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재현이가 그분을 보고 반기워하며 "다니엘, 우리 엄마야."라고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"너희 형제였어?"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웃기만 하더군요. 친구들이 왜 웃은 것일까요?

'우리'라는 표현 때문에 두 친구가 형제라고 착각하셨군요. '우리'는 '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 대명사'입니다. 하지만 한국에서는 '나의'라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'우리'라는 말을 써서 그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. 재현이라는 친구도 어머니와 친밀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'우리'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지요.

사회문화적 맥락 이해하기

#### 06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은 '쌀을 사다'라는 말이다.  
 ② 고모가 사용한 지역 방언의 의미를 주연이가 잘못 이해했다.  
 ③ 사회·문화적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. **지역, 차이**  
 ④ 같은 말의 뜻이 농촌과 도시에서 다른 것은 담화의 사회·문화적 맥락의 영향이다. **도시**  
 Ⓢ '쌀을 사다'라는 말은 농촌에서는 '돈을 주고 쌀을 사다'의 의미이고, 도시에서는 '돈을 받고 쌀을 팔다'의 의미이다. **농촌**

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파악하기

#### 07 (나)의 글쓰기가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.  
 ②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.  
 Ⓢ 충간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.  
 ④ 충간 소음이 들려도 조금만 이해해 달라.  
 ⑤ 충간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.

08 ⑩의 의미를 (다)에서 찾아 쓰시오.

음식이 뜨거워면서 속을 푸는하게 같다.

09 (라)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 (정답 2개)

- ① 재현이와 다니엘이 서로 다르게 이해한 말은 '우리'이다.
- ② 당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당화 시간의 차이이다.
- ③ '우리'라는 단어는 맥락에 관계없이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.
- ④ 재현이가 당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.
- ⑤ 다니엘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. (문화 차이 때문이므로)

[10~12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해설자: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물을 끓 담근 국민 분식 떡볶이!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!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,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. 승승승승 자른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. 맘껏 해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

⑦

해설자: 달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?

달인: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,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. 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

해설자: 화학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 비법! 세월 속 오랜 내공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.

달인: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

해설자: 풀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을 자칫 잘못하면 맹명할 수 있다는 것! 달인은 그 단점을 잘 극복했답니다.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, 금세 하얀 면酱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는 달리 몇 번을 행궈 내도 두꺼운 양념 웃을 자랑하는 달인표 떡볶이!

달인: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⑤ 그것이에요.

10 ⑩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요즘 이렇게 저렴한 떡볶이 집은 드물죠.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들르고 있어요.
- ②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어요.
- ③ 몇 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주인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.
- ④ 여기 떡볶이를 먹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어요. 가게 안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.
- ⑤ 저 여기 13년 단골입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예요.

11 ⑩을 앞뒤 문장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르게 고쳐 쓰시오.

그런데 (하지만)

[10~12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12 ⑩이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화학조미료
- ③ 쌀로 만든 떡볶이
- ② 밀가루로 만든 떡볶이
- ④ 쌀떡볶이는 자칫 잘못하면 맹명할 수 있다는 것
- ⑤ 몇 번을 행궈 내도 두꺼운 양념 웃이 그대로라는 것

13 다음 상황에서 남학생이 잘못 발음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?



- ① [비지] ② [비디] ③ [비치] ④ [빈이] ⑤ [비티]

14 밀줄 친 부분의 받침의 발음이 [ㄱ]이 아닌 것은?

- ① 삶 ② 기역 ③ 꺾다 ④ 맑고 ⑤ 부엌

**다식** [데익] [꺽파] [말꼬] [부익]

▶ 겹받침 'ㄺ'은 음절의 끝으로 [ㄱ]이지만,  
용언할 때 'ㄱ'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[ㄹ]고? ④  
(읽고 [일꼬], 맑게 [말끼]..)

15 밀줄 친 단어 중 받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은?

- ① 숲으로 나무를 심으려 간다. [눕]
- ②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 없다. [업파]
- ③ 한낮에도 군들이 끼어 어둡다. [구름]
- ④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난다. [부엌]
- ⑤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자. [박]

18 받침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음절의 끝에서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개이다.  
②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7개의 대표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.  
③ 훌받침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발음된다.  
④ 겹받침은 단어의 끝에서 앞엣것이나 뒤엣것 중 하나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.  
⑤ 받침은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.

**옷 위** [오되] : ㅅ→ㄷ  
의미있음  
**와이** [와이] : ㅅ→ㅅ 그대로  
의미없음

19 모음 'ㅓ'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첫음절에 있는 '의'는 [-]로 발음한다.  
②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'ㅓ'는 [ㅣ]로 발음한다. **회망**[하망]  
③ 첫음절이 아닌 '의'는 원칙적으로 [-]로 발음한다.  
④ 조사 '의'는 [-]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.  
⑤ 조사 '의'는 [ㅔ]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

**의**가 원칙, **ㅣ**가 허용. [-]는 허전발음

16 다음에서 ⑩과 같이 표기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쓰시오.

- ①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있고 싶다.  
②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있고 싶다.

- ①에 나타난 표기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.
- ②과 같이 표기할 때의 문제점을 서술할 것.

단어를 **너니** 나는 대로만 풀기하면  
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워진다.

20 다음 밀줄 친 단어를 잘못 발음한 것은?

- ① 우리말은 띠어쓰기[띠어쓰기]가 중요하다.  
② 그 안건은 사전에 혈의[혀비]가 필요해요. **혜비**[혜비]도 허용  
③ 이 회원증의 혜택[혜택]은 열 가지가 넘어.  
④ 잊지 말고 반드시 여권을 가져[가져] 오세요. **가져**  
⑤ 단어를 공부할 때는 예문[예문]을 많이 읽어라.

겹받침의 발음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?

- ① 옳다 ② 없다 ④ 맑다 ⑤ 넓적하다

**덥파, 업파, 짙파, 밤파, 넓저카다**

'지, 쪽, 쳐'는 [지 쪽 쳐]로 발음!  
'예, 켜'만 [예, 켜]로 발음.

[21~22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나주 들판에서

정말 소가 웃더러니까

①꽃이[꼬시] 소를 웃긴 ②것이지[거시지]

물을 뜯는 [기지]

소의 ②발밑에서[발미데서] [발미데시]

마침 꽃이 편 거야

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

그것만이 아니라,

파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

그래서,

소가 ③꽃 위에[꼬위에] 잡깐 둔 셈이지

하마터면,

소가 중심을 ④핥고[일코]

⑤(쓰러질, 쓸어질) 편한 것이지

단어의 발음 이해하기

21 밑줄 친 ①~⑤ 중 발음이 올바른 것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?

- ① ②, ④
- ② ③, ⑤
- ③ ④, ⑤
- ④ ②, ③
- ⑤ ③, ④, ⑤

단어의 표기 원리 이해하기

22 ⑥에서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, 표기의 적용된 원리를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<조건>

- 표준 발음법을 근거로 적용된 표기 원리를 서술할 것.
- ‘~ 적용하여 ~로 표기해야 한다’의 문장 형식으로 쓸 것

표준어를 [나]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 
적용하여 ‘쓰러질’로 표기해야 한다.

[23~25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재선: 여기가 바로 창덕궁 후원이야.

회정: 그 유명한 창덕궁 후원을 내가 직접 봤게 되다니!

재선: 창덕궁 후원은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어.

회정: 고마워, 재선아.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네. 후원의 연못이 정말 아름다워.

재선: 맞아. 연못가의 나무들도 정말 굵다. 오래된 나무들인가 봐.

회정: 그러게. 이렇게 고요한 궁궐 후원에 있으니 마치 임금님의 기분이야.

재선: 우리 점심은 이 근처 전통 시장에서 먹는 것이 어때?

회정: 좋아. 오늘은 전통문화 체험의 날로 정했어.

(나) 오늘은 친구 회정이와 함께 전통 시장에 갔다.

생긴 지 110년이 넘은 시장인데 ⑦읍식의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. 빈대떡, ⑧육개장 등 싸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고 있었다.

우리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⑨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반찬으로 나온 ⑩오이소박이가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다. 평소에 오이를 ⑪건드리지도 않는 회정이도 감탄한 맛이었다.

(다) 하라버지가 다구리 아프로 가면 쪼르르 몰려드려 하라버지를 살갑게 막아 주고는 합니다. 물론 머글썽 주려나 하고 몰려드는 거시지만 마릅니다.

이를 나아 줄 꺼시고, 또 아프로 병아리를 깨어 줄달기 하라버지에게는 가까운 친구, 아니 가족과 다르미 업씩씁니다.

단어의 발음을 파악하기

23 (가)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밟개[밥 : 깨] | ② 예약해[예아카야] |
| ③ 덕분에[덕뿐네]  | ④ 굵대[국 : 따] |
| ⑤ 체험의[체하임]  |             |

나자[체하임 / 체하임]

올바른 표기 파악하기

24 (나)의 ①~⑤ 중,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① ②, ④       | ② ③, ⑤ |
| ③ ④, ⑤       | ④ ③, ⑤ |
| ⑤ ①, ②, ③, ④ |        |

올바른 표기 파악하기

25 (다)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고 할 때,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할아버지가 된 우리 앞으로 가면 ② 쪼르르 몰려들어 할아버지들을 살갑게 맞아 주고는 합니다. ③ 물론 먹을 걸 주려나 하고 몰려드는 것이지만 말입니다.  
 ④ 알을 나아 줄 것이고, 또 앞으로 병아리를 깨어 줄 딸이 ⑤ 할아버지에게는 가까운 친구, 아니 가족과 다르미 없었습니다.

나아 (병이) 낫다 → 나아

(알을) 낫다 → 낫아

표기 원리와 발음 원리 이해하기

26 다음 빙킨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우리말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( ① )을/를 ( ② ) 나는 대로 적되, 단어의 ( ③ )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원래 ( ④ )을/를 밝혀 적기도 한다.  
 또한, 표준 발음은 ( ⑤ )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하여 정한다.

- ① 표준어
- ② 소리
- ③ 의미
- ④ 형태
- ⑤ 방언

표준어

“엄마, 저 어렸을 때 어땠느냐고요?”

“여기 어디 물을 ⑥안에 잡아 버리는 벨브 같은 거 있지 ⑦않나?”

레오가 싱크대 안을 ⑧들여다보며 말했다.

“여기 이거 같은데요?”

레오가 벨브를 잡그자 똑똑 떨어지던 물방울이 점점 뜀해지다 마침내 완전히 멈췄다. / 엄마가 말했다.

“됐다. 적어도 새는 건 멈췄으니. 근데 이제 어쩌자?”

“아빠한테 고쳐 달라고 하세요.”

레오의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.

“애, 네 아빠는 편해. 이거 고친답시고 스페너로 수도관이나 꽁꽁 두드려 대고 욕이나 잔뜩 해 댈 거야. 그럼 파이프가 터질 테고 그랬다간…….”

“엄마,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?”

“뭐? ⑨그것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? 너야 너였지.”

“그런 거 말고요. 저 어렸을 때 정말 어땠나고요?”

동일성 위배

올바른 발음 이해하기

28 ⑦~⑩의 발음으로 일맞은 것은?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⑦ [부어계] 부어케     | ② ⑧ [가지와] 가지와 |
| ③ ⑨ [아예] 아예       | ④ ⑩ [안해] 안해   |
| ⑤ ⑪ [들여다보며] 드려다보며 |               |

담화의 특성 파악하기

29 이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담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일맞은 것은?

- ① 담화는 형식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- ② 담화 참여자, 맥락, 전달하려는 내용이 해당한다.
- ③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.
- ④ 담화를 이루는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한다. 틀일성
-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같은 말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.

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 파악하기

30 ⑥가 가리키는 것으로 일맞은 것은?

- 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
- ② 부엌에서 사방에 물이 세는 이유
- ③ 레오가 어렸을 때 어땠나는 질문
- ④ 아빠한테 수리를 부탁하라는 조언
- ⑤ 적어도 물이 세는 건 멈췄다는 말

[28~30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레오의 엄마는 ⑦부엌에 있었다. 수도관을 들여다보느라 싱크대 속에 머리를 쳐박은 채.

“엄마,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?”

“여기 이 물 좀 봐라! 도대체 사방에서 물이 세니, 원! 가서 양동이 좀 ⑧가져와…….”

레오는 지하실에서 양동이를 가져왔다.